

##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미란\*\*

###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Style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Peer Interactions

Lee, Mi Ran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2012) 데이터 중 996명의 4세 유아 자료를 t 검정,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놀이방해를 많이 하였다. 둘째, 유아의 사회성기질이 강할수록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놀이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여아는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였다. 셋째, 유아의 정서성기질이 강할수록, 사회성기질이 약할수록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놀이단절을 많이 하였다. 남아는 아버지가 사회적 양육을 적게 할수록 놀이단절을 많이 하였다. 넷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유아기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 또래상호작용, 기질, 양육방식, 교사-유아 상호작용

\* 이 논문은 동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mrlee@dyu.ac.kr)

## I. 서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부모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성장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는 부모 및 가족으로 제한되었던 사회적 환경이 유아교육기관 등으로 확대되면서 유아는 교사 및 또래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교사 또는 또래와의 관계 안에서 유아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유아기의 발달과제(Rubin, Bukowski, & Parker, 2006)이므로 유아기에 있어서 또래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한편, 현대사회의 여성 취업 및 맞벌이가족 증가와 자녀 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보육지원정책의 시행 등으로 유아들이 과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더욱 많은 시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유아기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이 더욱 중요한 발달적 요소로서 대두되었다(Shaffer, 2000).

또래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특성(최혜영, 신혜영, 2011)으로서 성인과는 달리 수평적이며 균형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또는 갈등 등의 대인관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며 사회적 문제해결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유아는 또래관계를 형성한다(Rubin et al., 2006). 이러한 인생초기의 또래상호작용 및 또래관계는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꽤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지영, 서소정, 2012; Deynoot-Schaub & Riksen-Walraven, 2006; Howes, 1988; Howes & Phillippsen, 1998). 그리고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또래관계는 유아기 당시의 사회적 적응과 언어 및 인지적 학습(Bulotsky-Shearer, Bell, Carter, & Dietrich, 2014) 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과정에서의 사회성 발달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Ladd, 1999; Oades-Sese, Esquivel, Kaliski, & Maniatis, 2011; Shaffer, 2000). 이와 같이 유아기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발달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발달영역에 대한 영향도 지속적 효과를 가지므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그 이후의 발달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유아기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관심 아래, 최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옥분,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김경은, 201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유아의 놀이특성(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정서성(권연희, 2012; 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 정서조절능력(이지희, 김혜연, 2012; Rubin et al., 2006) 자기조절능력(남궁령, 2014; 황윤세, 2007) 등의 유아특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상의 유아특성 외에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요인으로 유아의 기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질이란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 운동, 주의집중 반응성, 자기조절에서의 개인차(Rothbart & Bates, 2006)를 일컫는다. 개인은 기질적 특성에 따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므로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도 기질특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사물이나 타

인에게 긍정적 정서로 접근하는 사회성기질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외향적이고 활동수준이 높은 유아는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으로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erdan, Keane, & Calkins, 2008). 그리고, 활동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적 기질이 강한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친사회적 행동수준이 낮거나 공격적 행동을 하고(Eisenberg et al., 1996) 놀이를 방해하거나 놀이상황과 단절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김희태 등, 2014; 황윤세, 2007; Oades-Sese et al., 2011). 반면, 유아의 억제 및 주의집중의 기질적 요소는 또래 사이의 갈등을 적게 하고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car, Rudasill, Molfese, Torquati, & Prokasky, 2015).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질이 또래상호작용의 각 하위범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부모요인과 교사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부모는 양육과정을 통해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이다. 부모는 자녀와 직접적으로 혹은 자녀양육 실제와 놀이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경험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모요인은 정서표현성(남궁령, 2014; 이지희, 김혜연, 2012), 부모역할지능(배조경, 신혜영, 2012), 양육효능감(남궁령, 2014) 등의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모변인 중 하나는 양육방식(손승희, 2001; 임현주, 2014; 정옥분 등, 2011; 조운주, 김은영, 2013; 황성은, 2014)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이나 정서를 포함한 자녀양육의 경향성을 의미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부모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정서,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등 전반적 발달에 영향(Bradley & Corwyn, 2004)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긍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끌기도 한다고 한다(Brenner & Fox, 1998; Carlson, 1998). 특히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친사회성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진순옥, 이정숙, 고인숙, 2013; 홍길희, 정미자, 2008; Flouri & Buchanan, 2004)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양육방식이 또래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다른 환경요인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다. 교사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동안 일과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한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소통체계(최소영, 신혜영, 2015)를 일컫는다.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학습 및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성 발달 및 사회적 유능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혜영, 2004; Aureli & Procacci, 1992;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근래에는 교사가 유아와의 관계를 통해 기질 등의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상호작용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권연희, 2012; 신혜진, 신나리, 2014; 최소영, 신혜영, 2015; Arbeau, Coplan, & Weeks, 2010; Griggs, Gagnon, Huelsman, Kidder-Ashley, & Ballard, 2009; Myer & Pianta, 2008; Rudasill, Niehaus, Buhs, & White, 2013; Stanton, Tina, & Hadden, 2011). 최근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사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지로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교사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이전 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영역 중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유아의 개인요인 및 부모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연구에서도 또래상호작용에서의 성차를 제시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은 여아가 더 많이 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남아가 더 많이 한다고 한다(권연희, 2012; 김정림, 허미경, 2013; 조운주, 김은영, 2013; 최소영, 신혜영, 2015; Coolahan et al., 2000). 한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교사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를 하며 다르게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발달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화 과정을 이끌 수 있으므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도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상호작용 그 자체 비교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다룰 뿐, 관련 변인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유아의 성별을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유아요인, 부모(어머니와 아버지)요인, 교사요인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유아와 부모(남궁령, 2014; 이지희, 김혜연, 2012), 또는 유아와 교사(김희태 등, 2014; 최소영, 신혜영, 2015; Griggs et al., 2009; Myer & Pianta, 2008; Rudasill et al., 2013) 등의 이원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부모요인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호작용에 관련 되는 변인 중 유아 개인요인으로 유아의 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을, 부모요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을, 그리고 교사요인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을 조사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관련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광범위한 생태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을 조사하여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형성을 위한 가족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기질, 어머니양육방식, 아버지양육방식,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유아기질, 어머니양육방식, 아버지양육방식,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데이터 중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를 추출하였으며 주요변인에 대한 응답내용이 부족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9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범위는 49개월에서 55개월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1.87개월(만 4세 3개월)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뿐만 아니라 유아의 부모, 그리고 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므로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교사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빈도(%)     |           | 구분       |         | 빈도(%)     |        |
|-----|----------|-----------|-----------|----------|---------|-----------|--------|
| 유아  | 성별       | 남         | 518(52.0) | 출생<br>순위 | 첫째      | 452(45.4) |        |
|     |          | 여         | 478(48.0) |          | 둘째      | 437(43.9) |        |
|     | 교육<br>기관 | 어린이집      | 623(62.6) |          | 셋째이상    | 107(10.7) |        |
| 유치원 |          | 329(33.0) |           |          |         |           |        |
| 학원  |          | 44(4.4)   |           |          |         |           |        |
| 어머니 | 연령       | 21세-25세   | 9(0.9)    |          | 학력      | 중학교       | 4(0.4) |
|     |          | 26세-30세   | 88(8.9)   | 고등학교     |         | 298(30.0) |        |
|     |          | 31세-35세   | 493(49.5) | 전문대      |         | 275(27.7) |        |
|     |          | 36세-40세   | 341(34.3) | 대학교      |         | 369(37.1) |        |
|     |          | 41세-45세   | 59(6.0)   | 대학원      |         | 48(4.8)   |        |
|     |          | 46세이상     | 4(0.4)    |          |         |           |        |
| 아버지 | 연령       | 26세-30세   | 40(4.0)   | 학력       | 중학교     | 7(0.7)    |        |
|     |          | 31세-35세   | 300(30.3) |          | 고등학교    | 273(27.6) |        |
|     |          | 36세-40세   | 472(47.7) |          | 전문대     | 203(20.5) |        |
|     |          | 41세-45세   | 152(15.4) |          | 대학교     | 407(41.2) |        |
|     |          | 46세-50세   | 21(2.0)   |          | 대학원     | 10(10.0)  |        |
|     |          | 51세이상     | 4(0.4)    |          |         |           |        |
| 교사  | 연령       | 25세이하     | 354(35.6) | 학력       | 고등학교졸   | 46(4.6)   |        |
|     |          | 26세-30세   | 305(30.6) |          | 전문대재학   | 45(4.5)   |        |
|     |          | 31세-35세   | 136(13.7) |          | 전문대졸    | 520(52.2) |        |
|     |          | 36세-40세   | 93(9.3)   |          | 대학교재학   | 38(3.8)   |        |
|     |          | 41세-45세   | 78(7.8)   |          | 대학교졸    | 314(31.5) |        |
|     |          | 46세이상     | 30(3.0)   |          | 대학원재학   | 17(1.7)   |        |
|     |          |           |           | 대학원졸     | 16(1.6) |           |        |

|     |                 |           |
|-----|-----------------|-----------|
|     | 200만원미만         | 45(4.5)   |
|     |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 177(17.9) |
| 가구  |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 262(26.4) |
| 월소득 |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 211(21.3) |
|     |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 132(13.3) |
|     | 600만원이상         | 164(16.5) |

## 2. 연구도구

### 1) 유아기질

유아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기질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AS 기질척도는 정서성(5문항), 사회성(10문항), 활동성(5문항)의 세 개 하위범주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유아의 기질에 대해 보고하였다. 6개 문항은 역채점 하며 각 하위범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범주의 기질을 강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며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유아가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 유아는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가 각각 .73, .83, .75로 나타났다.

### 2) 양육방식

양육방식 척도는 Bornstein 등(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를 수정한 도구이다. PSQ에서는 사회적, 가르치기, 한계설정 등의 세 가지 양육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적 교환의 정도를 알아보는 사회적 양육유형 6개 문항(예: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과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한계설정 양육방식의 통제적 양육유형을 조사하는 6개 문항(예: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설문지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 는 5점까지의 척도에 직접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양육방식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가 어머니 사회적 양육방식, 통제적 양육방식에서는 각각 .86, .75이었으며 아버지의 양육방식에서는 각각 .86, .82로 산출되었다.

### 3)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의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Holloway와 Reichhart(1988)가 개발한 ECOI(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ECOI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나는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등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가 해당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각 문항에 자신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가 .89로 산출되었다.

#### 4) 또래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Fantuzzo, Coolahan, Men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국내 아동에게 적용하여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놀이방해(13문항),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단절(8문항) 등의 세 하위범주를 다루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형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형식이다. 한국 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였다.

또래상호작용 하위범주 중 놀이방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고,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긍정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단절은 상호작용 중 위축되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의 행동을 다루고 있다. 2개 문항(놀이방해 문항)을 역채점한 점수를 반영하여 각 하위범주별 또래상호작용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범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5, .77, .81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9.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인 유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각 변인의 수준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얻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é 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래상호작용의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의 측정변인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또래상호작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전에 유아 또래상호작용

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또래상호작용 각 범주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상단에 제시하였다. 남아, 여아 모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는데 남아는 평균이 3.03, 2.15, 1.61로 산출되었고 여아는 3.18, 1.91, 1.50으로 산출되었다. 남아, 여아 모두 놀이상호작용 점수가 4점 만점에 3점이상이 되어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놀이단절은 남아, 여아에게서 모두 2점 이하로 산출되어 다른 상호작용에 비해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또래상호작용이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그리고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차이를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Levene 검증을 실시하였고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지 않는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놀이상호작용 분석에서는 비모수통계 방법인 Kruskal-Wallis검증을 하였다.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각 하위범주별 또래상호작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 검증

|            | N       | 놀이방해                   |      | 놀이상호작용            |      | 놀이단절             |      |     |
|------------|---------|------------------------|------|-------------------|------|------------------|------|-----|
|            |         | M                      | SD   | M                 | SD   | M                | SD   |     |
| 성별         | 남       | 518                    | 2.15 | .46               | 3.03 | .41              | 1.61 | .47 |
|            | 녀       | 478                    | 1.91 | .41               | 3.18 | .35              | 1.50 | .41 |
|            |         | $t = 8.56^{***}$       |      | $t = -6.25^{***}$ |      | $t = 3.70^{***}$ |      |     |
| 출생<br>순위   | 첫째(a)   | 452                    | 2.09 | .46               | 3.10 | .42              | 1.60 | .48 |
|            | 둘째(b)   | 437                    | 1.99 | .45               | 3.11 | .37              | 1.53 | .42 |
|            | 셋째이상(c) | 107                    | 2.08 | .44               | 3.10 | .37              | 1.54 | .42 |
|            |         | $F = 6.17^{**}(a>b)^1$ |      | $F = .19$         |      | $F = 2.83$       |      |     |
| 유아교육<br>기관 | 어린이집    | 623                    | 2.07 | .47               | 3.10 | .41              | 1.57 | .46 |
|            | 유치원     | 329                    | 2.00 | .42               | 3.11 | .34              | 1.54 | .42 |
|            | 학원      | 44                     | 2.00 | .54               | 3.08 | .44              | 1.60 | .51 |
|            |         | $F = 2.62$             |      | $\chi^2 = .23^2$  |      | $F = .84$        |      |     |

\*\* $p < .01$ , \*\*\* $p < .001$

주1: Scheffé 사후검증

주2: Kruskal-Wallis검증

<표 2>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모든 또래상호작용 하위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서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놀이방해( $t=8.56$ ,  $p < .001$ )와 놀이단절( $t=3.70$ ,  $p < .001$ )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반면, 놀이상호작용( $t=-6.25$ ,  $p < .001$ )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놀이방해( $F=6.17$ ,  $p < .01$ )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첫째아와 둘째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놀이방해는 첫째아가 둘째아보다 더 높았다.

## 2.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변인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방식, 아버지의 양육방식, 교사-유아 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정서성기질, 사회성기질, 활동성기질 등의 유아변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부모변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교사변인과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등의 각 범주별 또래상호작용과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유아의 성별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정서성기질   |                      | -.30*** <sup>1</sup> | -.05   | -.28*** | -.01   | -.13** | -.05   | .04     | .06     | -.05    | .11*    |
| 2.사회성기질   | -.22*** <sup>2</sup> |                      | .54*** | .24***  | .11*   | .04    | .05    | -.08    | .17***  | .10*    | -.11*   |
| 3.활동성기질   | -.03                 | .60***               |        | .11*    | .03    | .01    | -.01   | -.01    | .17***  | .04     | -.02    |
| 4.모사회적양육  | -.28***              | .21***               | .11*   |         | .13**  | .26*** | .10*   | .05     | -.02    | .08     | -.05    |
| 5.모통제적양육  | .02                  | .10*                 | .11*   | .12**   |        | .03    | .21*** | -.03    | -.06    | .03     | -.03    |
| 6.부사회적양육  | -.11*                | .12*                 | .04    | .25***  | .07    |        | .16*** | .07     | -.08    | .07     | -.10*   |
| 7.부통제적양육  | -.01                 | .02                  | -.01   | .03     | .24*** | .18*** |        | .04     | -.02    | .07     | .01     |
| 8.교사상호작용  | -.04                 | -.03                 | .04    | .05     | -.01   | .06    | .09    |         | -.21*** | .19***  | -.20*** |
| 9.놀이방해    | .01                  | .14**                | .15**  | -.05    | -.02   | -.06   | .03    | -.22*** |         | -.40*** | .41***  |
| 10.놀이상호작용 | -.06                 | .14**                | .06    | .02     | .09*   | .05    | .05    | .14**   | -.34*** |         | -.53*** |
| 11.놀이단절   | .12*                 | -.14**               | -.07   | -.08    | -.08   | -.02   | -.08   | -.26*** | .42***  | -.49*** |         |

\* $p < .05$ , \*\* $p < .01$ , \*\*\* $p < .001$

주1. 대각선 기준 오른쪽 위는 남아의 상관계수

주2. 대각선 기준 왼쪽 아래는 여아의 상관계수

<표 3>에서와 같이 남아의 경우, 또래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기질( $r=.17, p<.001$ ), 활동성기질( $r=.17,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교사-유아 상호작용( $r=-.21, p<.001$ )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남아의 놀이방해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기질( $r=.10, p<.05$ ), 교사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r=.19,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남아의 놀이단절은 정서성기질( $r=.11,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유아의 사회성기질( $r=-.11, p<.001$ ),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 $r=-.10, p<.05$ ), 교사-유아 상호작용( $r=-.20,$

$p < .0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아의 놀이방해는 유아의 사회성기질과 활동성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가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할수록 많이 나타나고,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기질이 높을수록 교사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놀이단절은 유아의 정서성기질이 높을수록 반면, 사회성기질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낮을수록,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또래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사회성기질( $r = .14, p < .01$ )과 활동성기질( $r = .15, p < .01$ )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교사-유아 상호작용( $r = -.22, p < .001$ )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기질( $r = .14, p < .01$ )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r = .09, p < .05$ )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r = .14, p < .01$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은 유아의 정서성기질( $r = .12, p < .05$ )과는 정적 상관을 이루고 사회성기질( $r = -.14, p < .001$ ), 교사-유아 상호작용( $r = -.26, p < .001$ )과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아의 또래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유아의 사회성기질과 활동성기질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교사가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많이 나타난다. 놀이단절은 유아가 정서성기질이 높고 사회성기질이 낮을수록,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또래상호작용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되는 변인들이 각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우선,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 참조),  $r = .60$  보다 높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08~1.85 로 산출되고 공차한계 값도 .98~1.00 이므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래상호작용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기 위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각 또래상호작용 하위범주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아대상의 분석결과는 <표 4>, 여아대상의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남아의 또래상호작용 각 하위범주별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각 하위범주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놀이방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단계의 유의한 모형이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 중 놀이방해의 설명력을 유의하게 높이는 1단계 변인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4.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기질이 추가됨에 따라 2.9%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놀이방해 변량을 총 7.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놀이방해에 대한 예측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beta = -.21, p < .001$ ), 유아의 활동성기질( $\beta = .17, p < .001$ )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남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2단계의 유의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놀이방해와 마찬가지로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

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상호작용에 대해 4.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사회성기질이 추가투입 되면서 0.9%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최종 이 두 변인에 의해서 놀이상호작용 전체 변량 중 5.1%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놀이상호작용에 대해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beta=.21, p<.001$ )과 유아의 사회성기질( $\beta=.09, p<.05$ )로 나타났다. 놀이단절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2단계의 유의한 모형이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놀이단절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다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정서성기질로서 정서성기질이 추가 투입되면서 1.3%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전체 변량 중 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단절 상호작용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beta=-.20, p<.001$ ), 정서성 기질( $\beta=.11, p<.0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남아의 또래상호작용의 모든 하위범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은 놀이방해에서는 활동성기질, 놀이상호작용에서는 사회성기질, 놀이단절에서는 정서성기질 등으로 나타났듯이 각각 다른 기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아의 각 하위범주별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각 하위범주별로 유의한 모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놀이방해의 경우, 2단계의 모형이 유의한 모형으로 제시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4.6%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2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기질이 추가되면서 3.1%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여아의 놀이방해의 총 변량 중 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남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유아 상호작용( $\beta=-.22, p<.001$ ), 유아의 활동성기질( $\beta=.16,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2단계의 유의한 모형이 나타났는데, 1단계에서는 사회성기질이 놀이상호작용 변량의 2.4%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2단계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이 추가 투입되면서 2.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4.5%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대해 영향력이 큰 변인은 다른 상호작용과 달리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기질( $\beta=.16, p<.01$ )이었으며, 교사-유아 상호작용( $\beta=.15, p<.01$ )이 그 뒤를 이었다. 여아의 놀이단절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2단계의 유의한 모형이 나타났는데, 1단계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놀이단절 전체 변량의 6.6%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다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사회성기질이 추가 투입되면서 2.7%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전체 변량 중 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놀이단절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beta=-.26, p<.001$ ), 사회성기질( $\beta=-.17,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여아의 놀이방해, 놀이단절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고 놀이상호작용에서만 유아의 사회성기질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변인은 놀이방해에서는 활동성기질, 놀이단절에서는 사회성기질이었으며 놀이상호작용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뒤를 이었다.

남아와 여아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우선,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활동성기질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사회성기질이 놀이상호작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향력이 큰 순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서는 교사-

유아 상호작용, 여아에서는 사회성기질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예측변인으로 추출되었다. 놀이단절의 결과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인 것은 남아와 여아에서 공통된 결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영향력 있는 변인은 기질에서 각각 다른 기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아는 정서성기질, 여아는 사회성기질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4> 남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예측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또래 상호작용 | 모형 | 예측변인                | B           | $\beta$     | t                   | R <sup>2</sup> | $\Delta R^2$ | F        |
|---------|----|---------------------|-------------|-------------|---------------------|----------------|--------------|----------|
| 놀이방해    | 1  | 교사-유아 상호작용          | -.22        | -.21        | -4.82***            | .045           | .045         | 23.21*** |
|         | 2  | 교사-유아 상호작용<br>활동성기질 | -.22<br>.14 | -.21<br>.17 | -4.84***<br>3.92*** | .073           | .029         | 19.62*** |
| 놀이 상호작용 | 1  | 교사-유아 상호작용          | .19         | .21         | 4.68***             | .042           | .042         | 21.86*** |
|         | 2  | 교사-유아 상호작용<br>사회성기질 | .20<br>.08  | .21<br>.09  | 4.82***<br>2.12*    | .051           | .009         | 13.26*** |
| 놀이단절    | 1  | 교사-유아 상호작용          | -.21        | -.20        | -4.48***            | .039           | .039         | 20.09*** |
|         | 2  | 교사-유아 상호작용<br>정서성기질 | -.21<br>.09 | -.20<br>.11 | -4.58***<br>2.56*   | .051           | .013         | 13.44*** |

\* $p < .05$ , \*\*\* $p < .001$

<표 5> 여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예측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또래 상호작용 | 모형 | 예측변인                | B            | $\beta$      | t                    | R <sup>2</sup> | $\Delta R^2$ | F        |
|---------|----|---------------------|--------------|--------------|----------------------|----------------|--------------|----------|
| 놀이방해    | 1  | 교사-유아 상호작용          | -.19         | -.21         | -4.67***             | .046           | .046         | 21.80*** |
|         | 2  | 교사-유아 상호작용<br>활동성기질 | -.19<br>.12  | -.22<br>.18  | -4.86***<br>3.87***  | .077           | .031         | 18.74*** |
| 놀이 상호작용 | 1  | 사회성기질               | .10          | .15          | 3.30**               | .024           | .024         | 10.91*** |
|         | 2  | 사회성기질<br>교사-유아 상호작용 | .10<br>.11   | .16<br>.15   | 3.43**<br>3.19**     | .045           | .022         | 10.67*** |
| 놀이단절    | 1  | 교사-유아 상호작용          | -.23         | -.26         | -5.65***             | .066           | .066         | 31.96*** |
|         | 2  | 교사-유아 상호작용<br>사회성기질 | -.23<br>-.13 | -.26<br>-.17 | -5.84***<br>-3.67*** | .093           | .027         | 23.15***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아의 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와 각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상호작용은 남아가 더 많이 하는 반면, 놀이상호작용은 여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상호작용은 여아가 더 많이 하고 놀이방해 상호작용은 남아가 더 많이 한다는 연구(권연희, 2012; 김정림, 허미경, 2013; 임현주, 2014; 조운주, 김은영, 2013; 최소영, 신혜영, 2015; Coolahan et al., 2000)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여아가 더 많이 하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남아가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김현지, 전경아, 2010;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이지희, 김혜연, 2012; 정선교, 안선희, 2006; 최혜영, 2004; Maccoby, 1990)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또래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성차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친사회적 성향이 여아가 남아보다 더 강하다(Phillipsen, Bridges, Saponaro, 1999)는 특징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래상호작용에서의 성차는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Shaffer, 2000).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 환경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행동을 강화한다. 즉, 여아에게는 타인에게 친절하며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아에게는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화과정에서의 차이는 사회적 행동인 또래상호작용에서의 성차를 이끌어 남아는 또래상호작용 상황에서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배회하는 등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여아는 자신을 통제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는 놀이방해에서만 나타났다. 첫째아와 둘째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첫째아가 둘째아보다 놀이방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방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또래상호작용이므로 첫째아가 둘째아보다 또래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적 또래작용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놀이방해 상호작용이 둘째아가 첫째아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조운주, 김은영, 2013)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이러한 차이는 또래상호작용을 보고한 응답자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조운주와 김은영(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에 기초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보고한 자료에 기초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어머니는 둘째아이가 첫째아보다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방해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유아의 출생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또래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생순위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아직 일치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그리고 교사의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 때, 변인 간의 관계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하위범주별로 관련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놀이방해 상호작용의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관련 변인이 남아와 여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유아의 사회성기질과 활동성기질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기질특성 중 사회성과 활동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방해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방해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성, 활동성 기질과의 상관관계는 외향적이고 활동수준이 높은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 사회적이며 긍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을 하는 등 부정적 측면을 보이기도 하기(Berdan, et al., 2008)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사변인인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놀이방해와의 관계를 통해 교사가 유아와 온정적이며 반응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놀이방해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덜 하고(김영희, 박지현, 2013; 최소영, 신혜영, 2015) 교사와 유아 간 친밀감이 낮을수록(김희태 등, 2014; 이지희, 김혜연, 2012) 그리고, 교사가 부정적 정서표현 행동을 많이 할수록(최혜영, 2004) 유아들이 또래를 방해하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놀이방해 상호작용 사이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를 하면서 또래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등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놀이상호작용의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사회성기질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가 발견되어 사회성이 높을수록 교사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유아가 또래와 친사회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과 사회성기질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기질특성 중 사회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연구보고(이지희, 김혜연,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결과는 교사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최혜영,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관계는 여아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여아의 놀이상호작용과 상관이 있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관련변인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회적 기질 특성인 사회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또래와 친사회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할수록 여아는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함께 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놀이상황에서 위축되는 상호작용인 놀이 단절은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과 사회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아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성이 낮을수록 유아는 놀이단절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위축된 유아는 사회적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므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정옥분 등, 2011)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성기질이 놀이단절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희태

등, 2014; 이지희, 김혜연, 2012; 조운주, 김은영, 2013)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놀이단절과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의미 있는 상관성은 남아에게서만 나타났는데 남아의 아버지가 사회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아들은 놀이단절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놀이단절 상호작용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교사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놀이단절 상호작용을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아의 각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때 또래상호작용 하위범주에 따라 그리고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상호작용 범주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 세 가지 또래상호작용에서 모두 두 단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각 상호작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예측변인은 상호작용 하위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같은 상호작용이라도 남아와 여아에게서 예측변인이 다르기도 하였다. 놀이방해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활동성기질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의 분석결과, 남아와 여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상대적 영향력이 큰 예측변인이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성기질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그 순서는 달랐다. 남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력이 큰 변인의 순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성기질의 순이었지만 여아에게서는 예측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반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다른 성별 및 또래상호작용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인 것과 달리 여아의 놀이상호작용에서만 제1의 예측변인이 사회성기질로 나타났다. 다음, 놀이단절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남아의 놀이단절에 대해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성기질의 순이었지만 여아의 경우는 두 번째 영향력 있는 변인이 사회성기질이었다. 즉, 또래관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위축되는 등의 놀이단절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이 남아는 정서성, 여아는 사회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아의 놀이상호작용에서의 사회성기질의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이 나타난 것과 여아의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도 남아와 다르게 사회성기질로 나타난 결과에서 여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성기질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유아의 기질의 영향을 살펴보면, 각 기질특성은 각기 다른 또래상호작용 하위범주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정서성기질은 놀이단절, 활동성기질은 놀이방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기질과 활동성기질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김희태 등, 2014; 이지희, 김혜연, 2012; 황윤세, 2007; Oades-Sese et al., 201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사회성기질이 모든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되는 주요한 변인으로 결과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성기질이 강할수록 놀이방해와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놀이단절 상호작용은 적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기질이 강한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주 시도하고 또래와의 놀이를 활발히 하여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아직 자기중심적 특성을 갖는 유아들은 놀이과정 등의 또래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놀

이방해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성기질이 강한 유아는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등의 놀이단절 상호작용은 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기질이 높이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등 각각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증진 또는 지도를 위한 접근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인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교사는 부모와 협력하여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감소시키거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특히, 기질적 특성을 인지하여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으로 양육방식을 조사하였으며 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또래상호작용의 하위범주는 남아와 여아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놀이단절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었으며 여아의 놀이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모 양육방식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또래상호작용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예측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아와 여아 모두 각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각 기질특성인 반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결과 된 것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보다 어린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그리고 통제적 양육방식이 각 하위범주의 또래상호작용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조운주, 김은영, 2013; 황성은, 2014)와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조운주와 김은영(2013)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한 내용이고 본 연구는 교사가 보고한 내용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관계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관계가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 일부연구(정옥분 등, 2011)에서 이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좀 더 많은 대상을 포함한 체계적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유아의 연령변화에 따라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양육방식의 분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육방식이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버지가 사회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아들이 놀이단절 상호작용을 덜 하였고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딸이 또래와 더욱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부모 양육방식이 동일한 성별의 자녀(아버지-아들, 어머니-딸)의 또래상호작용에만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한 사회화 과정의 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신과 동일한 성별 자녀의 유능성을 이끄는 행동을 한다는 주장(Lindsey & Mize, 2000)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아들



의 놀이단절 상호작용과의 관계는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아의 정서성기질은 부모의 사회적 양육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아들의 정서성기질은 놀이단절 상호작용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들의 발달적 결함의 예견을 예방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들이 잘 울고,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정서성기질을 보이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해주는 등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면 아들은 또래상호작용에서 소극적이거나 위축되지 않고 또래와 더욱 긍정적 또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딸이 또래와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임현주, 2014)의 권위와 규칙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방식이 유아의 놀이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 양육방식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지도나 통제를 많이 하면 유아가 또래상호작용에서 공격적 행동을 덜 하고 (정옥분 등, 2011) 유아가 방해나 단절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며(배조경, 신혜영, 2012), 자기정서 이용,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를 잘 하고 또래관계도 잘 한다는(안은영, 2006) 결과와 함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자녀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제가 아닌 적절한 개입과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지시, 명령 등을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통제를 하는 양육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황이나 맥락에 적절한 규칙을 알려주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따르도록 하게 하는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성 측면의 또래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긴 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기 다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또래상호작용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하나의 변인으로 묶어서 다루거나 다른 하나로 대체하기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부모를 연구에 포함하여 각각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사회성과 관련된 체계적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 운영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모든 또래상호작용 범주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도 여아의 놀이상호작용을 제외한 모든 또래상호작용에서 1단계 회귀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만4세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교사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교사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길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사의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구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교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이 이후 발달과정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유아기의 또래상

호작용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또래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변인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유아 개인변인, 어머니변인, 아버지변인, 교사변인을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다양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행동인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구분하여 자료를 다룬 결과, 성별에 따라 또래상호작용의 관련 변인이 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 양육방식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할 때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등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아의 중요한 사회성 발달요소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돕고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권연희, 2012; 신혜진, 신나리, 2014; 최소영, 신혜영, 2015; Arbeau et al., 2010; Myer & Pianta, 2008; Griggs et al., 2009; Rudasill et al., 2013; Stanton et al., 2011)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기질 또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교사와 부모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나마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 또래관계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적 지원 방안 모색에 기초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면서 현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더욱 중요한 사회적 행동 및 능력으로 부각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인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교사가 자기보고식에 의해 완성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정자가 동일인이므로 자료에 개인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이 아닌 관찰방법으로 두 변인 측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 변인을 따로 측정하기 보다는 교사와 유아, 교사와 유아 또래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역동적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 부모, 교사변인을 포함한 횡단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동일시점에서의 상관의 자료일 뿐, 영향을 주는 방향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잘 설계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여 또래상호작용의 변화와 관련 변인의 변화과정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어머니, 아버지, 교사 변인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인들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관련 변인 규명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는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므로 또래상호작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변인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다른 환경요인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김영희, 박지현 (2013).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자료집, 84-101.
- 김정림, 허미경 (2013).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놀이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3), 101-119.
- 김현지, 전경아 (2010). 유아-교사 관계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아동지도연구**, 7(2), 17-34.
- 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34(2), 29-48.
- 남궁령 (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 배조경, 신혜영 (2012). 어머니 역할지능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91-111.
- 손승희 (2001).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혜진, 신나리 (2014). 유아의 기질과 교사와의 관계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47-68.
- 안은영 (2006).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희, 김혜연 (2012). 유아기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 임현주 (2014). 유아의 성별,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5-27.
- 정선교, 안선희 (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217-236.
- 정옥분, Rubin, K. H.,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김경은 (2011).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인간발달연구**, 18(1), 151-168.
- 조운주, 김은영 (2013).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제 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자료집, 63-83.
- 진순옥, 이정숙, 고인숙 (2013).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 및 양육스타일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8(1), 109-126.
- 최소영, 신혜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

- 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 최혜영 (2004). 아동의 또래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혜영, 신혜영 (20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또래놀이행동 척도의 타당화. **아동학회지**, 32(2), 35-52.
- 하지영, 서소정 (2012).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41-166.
- 홍길희, 정미자 (2008).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언어형태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2), 237-260.
- 황성은 (2014). 어머니 결혼 특성, 심리적 특성, 양육스타일이 유아기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3), 355-378.
-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Acar, I. H., Rudasill, K. M., Molfese, V., Torquati, J., & Prokasky, A. (2015). Temperament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interaction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6(4), 479-495.
- Arbeau, K. A., Coplan, R. J., & Weeks, M. (2010). Shynes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grade 1.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3), 259-269.
- Aureli, T., & Procacci, M. A. (1992). Day care experience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3(1), 45-54.
- Berdan, L. E., Keane, S. P., & Calkins, S. D. (2008). Tempera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Social preference and perceived acceptance as protective fa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4), 957-968.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radley, R. H., & Corwyn, R. F. (2004). *Family investments in children's potential: Resources and parenting behaviors that promote success*. NJ: LEA.
- Brenner, V., & Fox, R. A. (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2), 251-256.
- Bulotsky-Shearer, R. J., Bell, E. R., Carter, T. M., & Dietrich, S. L. (2014). Peer play interactions and learning for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classroom qualit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6), 815-840.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rlson, E. A. (1998).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attachment disorganization/disorientation. *Child Development*, 69(4), 1107-1128.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eynoot-Schaub, M. G., & Riksen-Walraven, J. M. (2006). Peer interaction in child care centers at 15 and 23 months: Stability and links with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9*(2), 276-288.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y, B. C., Wosinsky, M., Polazzi, L., Carlo, G., & Juhnke, C. (1996). The relations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3), 974-992.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louri, E., & Buchanan, A. (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2), 141-153.
- Griggs, M. S., Gagnon, S. G., Huelsman, T. J., Kidder-Ashley, P., & Ballard, M. (2009).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matter: Moderating influences temperament and preschool social compet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6*(6), 553-567.
- Holloway, S. D., & Reichhart-Eri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u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39-52.
- Howes,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1), 448-456.
- Howes, C., & Phillipsen, L. C. (1998). Continuity in children's relations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7*(3), 340-349.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 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2), 449-460.
- Ladd, G. W. (1999).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333-359.
- Lindsey, E. W., & Mize, J. (2000). Parent-child physical and pretense play: Link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4), 565-591.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20.
- Myer, S. S., & Pianta, R. (2008). Developmental commentary: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267-283.
- Oades-Sese, G. A., Esquivel, G. B., Kaliski, P. K., & Maniatis, L. (2011). A longitudinal study of

- the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bilingual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747-764.
- Phillipsen, L. C., Bridges, S. K., & Saponaro, L. A. (1999). Perceptions of social behavior and peer acceptance in kindergarte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4(1), 68-77.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ew York: Wiley & Sons.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571-645). New York: Wiley & Sons.
- Rudasill, K. M., Niehaus, K., Buhs, E., & White, J. M. (2013).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and peer interactions in third grade: The role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 early elementary grad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6), 701-716.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Stanton, C., Tina, L., & Hadden, D. S. (2011). Encouraging peer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The role of the teacher. *Young Exceptional Children*, 14(1), 17-2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ables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The data of 966 4-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class teachers were extracted from the 5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12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NOVA, Pearson's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ys'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were higher than girls', and girls' play interaction was higher than boys'. Second, sociability and activity of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were related to peer disruption. Third,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sociability of temperament significantly affected play interaction.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was positively related to peer interaction in girls. Fourth, teacher-child interaction, sociability and emotionality of temperament significantly affected play disconnection.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fa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play disconnection in boys. Lastly, teacher-child interaction was the clearest indicator for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These findings suggested a potential role of the teacher i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Key Words* : *peer interactions, teacher-child interactions, temperament, parenting style*

|        |               |
|--------|---------------|
| 논문투고   | 2015. 06. 15. |
| 수정원고접수 | 2015. 10. 15. |
| 최종게재결정 | 2015. 10. 17. |

